원칙과 융통성의 적절한 조화



新 불교사자성어

㉒ 수연불변(隨緣不變)

'수연불변(隨緣不變)'은 인연에 따르지만, 본질 · 근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화엄경〉과 〈대승기신론〉에 있는 사자성어로서 앞뒤를 바꾸어 '불변수연(不變隨緣)'이라고도 한다. 진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인연, 즉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융통성), 대응한다는 뜻이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변화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초기불교와 〈아함경〉 등에서 진리는 연기(緣起) · 삼법인 · 사성제 등이다. 〈화엄경〉과 〈대승기신론〉 등에서는 '진여(眞如)'라고 한다. 진여를 다른 말로는 법성 · 불성 · 법신 · 공(空) · 여래장이라고도 하는데, 연기가 곧 공(空)인 것처럼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다.

진리는 불변(不變)이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 인연에 따라(隨緣) 삼라만상이 연출되는 것처럼, 진리도 하나의 가치관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금강경〉에는 "고정된 법(진리)은 없다(無有定法). 그것을 이름하여 아뇩다라 삼먁삼보리(올바른 깨달음)"라고 설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고정관념(不變)에 구속되거나 사로잡히면 깨달음이나 해탈을 이룰 수가 없다. 고정관념의 굴레 속에 갇히면 그로부터 고(苦)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의 괴로움과 고난을 구제해 준다. 또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고난 속에 있는 중생을 건지기 위하여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몸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씀이 있다.

때론 국왕의 모습으로, 때론 돈 많은 부자의 모습으로, 때론 미녀의 모습으로, 그 밖에 귀신의 모습 등 33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지만 관세음보살 자체는 변하는 것이 없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필요에 의하여 변화신을 나타낼 뿐이다.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보면 갖가지로 변화한다. 그러나 다시 맞추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와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염불문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이라고 한다.

불변과 수연은 '원칙과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과 융통성은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국가운영이나 기업운영, 개인의 인생에서도 원칙이 없으면 그것은 철학이 없는 것과 같다. 철학이 없으면 목표가 없는 것이고 목표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이 하면 덩달아 뒷북을 치다가 끝난다.

그렇다고 융통성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너무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강하면 망한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운영이나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유명한 필름회사 코닥필름이 문을 닫은 것은 메모리 개발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망하는 것은 모두 과거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자기가 최고로 옳다는 생각과 자신의 주장에 빠지면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성장이 멈추게 된다. 철학이나 사유세계는 물론 한 인간의 성장과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융통성이 너무 과다하게 많으면 편의주의, 기회주의자가 된다. 우선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원칙은 본질이고 불변이다.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무 원칙만 고수하면 그것은 곧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인간이 된다. 시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자칫 무의하게 된다.

불변과 수연, 원칙과 융통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그렇지 않다. 타인에게는 각박할 정도로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다가도 내가 필요할 때엔 융통성을 앞세운다. 너무 원칙을 고수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융통성이 많아서도 안 된다.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불변(不變)과 수연(隨緣), 수연과 불변을 잘 적용할 때 여법할 수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㉒ 이해의 길 2

'신'이 종교의 본질인가?

중고등학교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닌 적이 있다. 그때는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 막연히 윤리나 철학 정도로 생각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불교에서는 신(神)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 없는 종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종교의 본질이 신에 있다는 생각은 오늘에도 여전히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론 '신'은 서구 종교를 이해하는 핵심적 요소지만, 종교 전체를 아우르는 관념은 아니다. 본래 종교의 영어 표현인 릴리전(Religion)은 '다시(again)'를 의미하는 're'와 '결합(take up)'의 뜻을 지닌 'ligion'의 합성어다. 이 둘을 연결한 '릴리전'은 신과 인간의 재결합이라는 뜻이 된다. 여기에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신과 이별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신과 인간이 다시 결합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그리스도가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중계 역할을 했으며, 그것이 곧 서구 중세 사회에서 이해한 릴리전의 전형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들에게 종교는 기독(基督,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거의 전부였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로 마치는 이유도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과 만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신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주장한 이들이 이단으로 몰려 종교재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기독교는 신의 종교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자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구원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지하고 죄를 회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절대 타자인 신에 의존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신앙이 지금까지 줄곧 말해왔던 타력종교(他力宗敎)다.

릴리전의 기준에 따르면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를 비롯한 동양의 종교 역시 신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다. 그런데 '신과 인간의 만남'이 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

서구의 종교학자들이 동양의 종교와 만나면서 느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신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를 정의하면 동양의 종교를 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은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기존의 종교 정의를 폐기한 것이다. 벌써 2백여 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폐기처분된 관념에 얽매여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떼쓰고 있는 것이다.

종교학자들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판을 짜야만 했다. 깊은 고민 끝에 그들은 '성(聖)'과 '속(俗)'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을 '속'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인간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적 욕구를 가진 존재다. 그들은 영원한 삶을 '성'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여, 종교는 유한한(俗)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聖) 삶을 추구하는 신앙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각각의 종교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종교는 이제 '거룩함'이라는 새로운 상황과 만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서구 사회에서 뿌리 깊게 내려온 창조주로서 신의 관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 성스러움은 신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코 '신'이라는 절대 타자를 배제한 채 종교를 거론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기독교 안에 신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전통도 존재하지만, 이는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종교학자들이 자신의 전통을 포기하면서까지 동양의 종교를 인정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는 오늘의 행태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그들은 다른 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예의를 아는 기독교인이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말하지 않는 말'이란 무엇인가?

〈不言言〉



격절록 강설

㉒ 제8칙 노조끽반(魯祖喫飯)

[古則과 着語]

擧, 僧問魯祖 (這面壁漢鈍滯殺人) "如何是不言言" (道什麼) 祖云 "你口在什麼處" (險) 僧云 "某甲無口" (撞着) 祖云 "將什麼喫飯" (第二杓惡水來也) 僧無語 (可惜許 將成九仞之山 不進一簣之土)

어떤 스님이 노조(魯祖, 노조보운)에게 물었다. [이 면벽이나 하는 사람이 사람을 몹시도 멍청하게 만드는군.] "어떤 것이 말하지 않는 말(不言言)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노조가 말했다. "네 입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험(險, 위험하다)!]

스님이 말했다. "저는 입이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조가 말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밥을 먹는가?" [두 번째 구정물 바가지를 퍼붓고 있다.]

그 스님이 대답이 없었다. [애석하다. 높이가 구인(九仞)이나 되는 산을 쌓다가 한 삼태기 흙이 모자라는구나.]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好劈脊便棒 (也是遲了也) 這般漢 開口了合不得 合口了開不得" (雪竇却須替這僧喫棒始得).

설두가 염해서 말했다.

"(그때) 등판때기를 후려갈겼어야 했다. [그래도 역시 늦다]. 이런 놈은 입을 열면 닫을 줄 모르고, 입을 닫으면 열 줄 모른다." [설두가 도리어 이 스님을 대신해서 방망이를 맞아야 한다.]

[評唱 1]

師云. 魯祖參馬大師 住池州魯祖山. 凡見僧來便面壁 直下省要 只是難搆. 南泉聞云 "我尋常向人道 向佛未出世時承當尚不得一箇半箇 他恁麼驢來去" 一日南泉到來 撫師背一下 師云 "誰" 泉云 "普願" 師云 "如何" 泉云 "也是尋常" 祖云 "得恁麼多口"

노조는 마 대사를 참례하고 지주(池州) 노조산(魯祖山)에 주석했다. 무릇 스님이 오는 것을 보면 바로 면벽(面壁)을 해서 (이로써)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기를 원했지만, 다만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뿐이었다. 남전이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부처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나 반도 얻지 못한 것이다'고 했는데, 그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귀해가 되어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루는 남전이 와서 노조의 등을 한 번 어루만지자, 노조가 말했다.

"누구요?"

남전이 말했다.

"보원(普願)이네."

선사가 말했다. "어떻소?"

남전이 말했다.

"역시 늘 그렇지."

선사가 말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으면서…"

***노조보운(魯祖寶雲): 생몰 연대는 알 수 없다. 마조도일의 법을 잇고, 늘 면벽한 것으로 유명하다.**

***將成九仞之山 不進一簣之土(爲山九仞功虧一簣): 〈서경(書經)〉 '여오편(旅獒篇)'에 나오는 말로 높이가 구인(九仞)이 되는 산을 쌓는 데, 최후의 한 삼태기의 흙을 얹지 못하여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뜻으로, 오래오래 쌓은 공로가 최후의 한 번 실수나 부족으로 실패하게 됨을 이르는 말.**

***"得恁麼多口(이렇게 말을 많이 했으면서…)"가 조당집 제14권에서는 "汝何多事(너는 어째서 일이 많은가?"로 달리 전한다. 또한 선문염송집 제6권에서는 본칙에 대한 대혜종고의 염으로 소개 하면서 끝부분의 노조의 말씀은 전하지 않는다.**

〈강승욱 법사〉

영·유아 행복드림 사업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라이프 가든(베이비 박스)

후원문의 051)664-7300 | happiness2121@hanmail.net



영·유아 유기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영·유아 생명권 보호

❶ 영·유아 유기 예방 시스템

❷ 영·유아 생명권 보호: 라이프 가든

❸ 영·유아 유기 관련 연구

(사)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홍법사, 동의대학교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른 뜻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0-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